

# 불교 근간되는 점안의식... 교리와 사상, 수행법 등 총 망라

## 불상점안의식 연구 점안의식집

해사 스님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 5천원/3만원



### ▲ 불상점안의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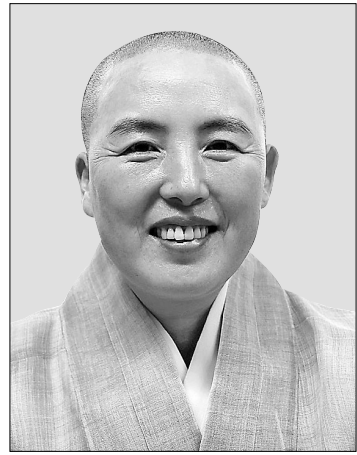
불교의례의 핵심은 귀의 대상인 불법승 삼보에게 예경과 찬탄, 그리고 공양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는 소례(所禮)인 불상을 한낱 조각품이 아닌 삼십이상과 팔십중후를 갖춘 완전한 부처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불상이 불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성물에 불과하다면 법당 불상에 예를 갖추고 공양을 올리는 불교의례는 그야말로 우상숭배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불교의식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모든 불교의식을 의식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점안의식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불교의식은 부처님을 모시고 거행하

는데, 이런 예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점안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안의식에는 불교의 교리와 사상, 수행 방법과 목적 등이 총 망라되어 있어 불자들의 신심 고취는 물론 방향성까지 제시해 준다. 무엇보다도 모든 의례가 가능한 일차적 의식이라는 점에서 불교의식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책은 불상점안의식의 역사와 사상,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작법을 체계적으로 조명한 최초의 책이다. 또한 저자인 해사 스님(사진·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4년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의식은 어떤 집단의 정체성과 동일성을 확고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각각에 맞는 의식들이 발전했으며, 불교 역시 다양하고 복잡한 의식이 시행된다. 불교에서 의식은 법회 목적과 장소에 따라 여러 형태로 진행되는데, 전문 의식에서는 상징성과 압축성으로 인해 그 의미와 절차가 거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점안의식의 전례에 권위가 부여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책은 점안의식이 불상이나 불화가 진정한 불보(佛寶)가 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의식인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점안의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나타난 사상과 의미를



## 불상 점안의식 체계적으로 서술 2014년 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논문 “점안의식 거처야 조각·그림 佛格”

파악해 올바른 점안의식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술했다.

이 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를 개괄하는 제 1장에 이어, 제 2장 '불상점안의식의 배경과 사상'에서는 불상점안의식의 사상적 기반과 특성·의의 등에 대해 고찰한다. 즉 초기대승경전의 다불사상과 대승불교의 삼종삼보, 삼신불 사상 등의 고찰을 통해 사상적 기반을, 태장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 제존의 의미, 점법에 나

타난 사상 등을 통해 그 특성을, 나아가 점안의식이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 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제 3장 '불상점안의식의 전개'에서는 불상의 기원과 점안의식의 형성 배경을 고찰하고, 점안의식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 점안의식과 다른 의식들의 특징과 의미를 비교한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점안의식은 조탑점안, 나한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신중점안, 산신점안, 불상점안 등이다.

제 4장 '불상점안의식의 작법 절차'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먼저 점안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불단이나 법구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점안의식 전에 시행되는 <삼화상청>과 <신중작법>의 의미와 내용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 점안의식의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엄정의식·결계의식·건단의식·소청의식·점필의식·관불의식·장엄의식·공양 의식 등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아가 점안의식에 사용된 법패와 작법무, 점안의식의 수인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특히 수인의 복원은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즉 현재 한국불교서 통용되는 <점안의식문>에 수록되지 않는 불보살의 수인을 경전과 도상적, 의식문을 토대로 새롭게 찾아내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15세기에 제작된 <진언집>서부터 근대의 <석문의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식집을 분석 종합해, 여법한 작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한낱 조각품서 성스러운 귀의처, 부처님으로 격을 바꾸는 점안의식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찰하고, 점안의식이 부처님을 우리 곁으로 모시는 절차임과 동시에 각자에 내재된 자성불에 점안하는 의식임을 밝힌다.

저자인 해사 스님은 “이 책이 불상점안의식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나아가 그 중요성과 의미에 걸맞은 여법한 의식으로 진행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책 출간 취지를 말했다.

### ▲ 점안의식집

점안의식은 조각이나 그림을 성스러운 예배 대상으로 환골탈태시키는 의식이다. 즉 점안의식을 거처야 조각이나 그림이 불격(佛格), 부처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예경, 즉 불교의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불교의식서 점안의식이 갖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은 전래된 의식문에서의 점안의식 문들을 토대로 현행 점안의식을 보완해 각종 점안의식들을 보다 여법하게 집성, 편집했다.

불자들은 불상이나 불화 등을 성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예경을 올린다. 그런데 조각품이나 그림이 어떻게 예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점안의식에 있다. 이를 통해 조각이나 그림이 불보(佛寶)로

격상된 것이다. 그 만큼 점안의식은 모든 의식의 근간이 되며, 따라서 점안의식이야말로 가장 여법하게 치러져야 한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점안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상점안의식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고, 점안의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 저자는 그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행 점안의식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보다 여법한 <점안의식집>을 편집했다. 또한 <대장장>서 다라니에 맞는 수인들을 찾아 보완했는데, 의식에서 신구의 삼밀(三密)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하나인 신밀(身密)의 수인을 보완한 것은 그의 미가 작지 않다.

이렇듯 편자는 점안의식의 여법한 작법 절차를 위해 전래된 기존 의식집들, 즉 <진언집> <청문> <권공제반집>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법음집> <대다라니진언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제법의범음산보집> <조선의법> <작법기법> <점안작법> <요집> <석문의법> 등에 기록된 점안의식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현행 점안의식에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각종 점안의식들을 제시한다. 즉 삼화상청, 신중작법, 불상점안, 삼보통청, 신중권공, 화엄시식, 조탑점안, 나한점안, 신중점안, 시왕점안, 천왕점안, 산신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불상이운, 괘불이운, 파불급경가사소승법 등이 그것이다. 김주일 기자

# 조선의 승려, 조선 불교의 근대화를 꿈꾸다

## 조선불교유신론

만해 한용운 지음, 최경순 옮김  
민족사 펴냄 | 2만 3500원



<조선불교유신론> (1913년 불교서관)은 만해 한용운의 저작으로, 당시 조선 불교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혁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조선불교의 근대화를 추진했던 책이다. 이번에 최경순씨가 새롭게 번역한 이 책은 기존의 번역들을 월등히 뛰어넘는다.

I 장은 <조선불교유신론>의 해제이다. 역자는 저자 한용운의 생애와 저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고찰했다. 또 <조선불교유신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만해 사상의 근간이 된 량치차오(梁啟超)와 사회진화론에 대해서도 살폈다.

II 장은 <조선불교유신론>을 번역한 부분

인데, 한용운은 조선불교 개혁을 토로하고, 불교는 미신이 아니라 고금동서의 모든 철학을 종합·표현하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의 이상(理想)은 평등주의 내지는 구세주의(救世主義)에 있는 것으로 이는 서양의 자유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역설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불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불교의 근대화를 위해선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맹목과 번잡한 의식들을 버려야 하고, 승려도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원의 주지 선출 문제, 교단 조직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III 장은 <조선불교유신론>의 번역과 그 연구(부제: 만해학(萬海學)의 ‘빛과 그림자’)이다. 여기서 역자는 ‘조선불교유신론’의 새 번역의 필요성과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만해의 일본행이 만해 사상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했다. 부록에는 ‘조선 불교유신론’의 영인본이 실렸다.

“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넘은 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애송시 <님의 침묵>의 첫 구절이다. 만해 한용운은 조선이 식민지하에 있던 1926년 당시, 민족 독립에 대한 희망을 ‘님의 침묵’이라는 시로 형상화했다. 이 시는 그 후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낭송

### 옛말투를 한글 문장으로 옮겨

### 서양인명과 지명의 원어 밝혀

### 만해 본문을 인용한 문장 출처 소개

되고 있다. 한용운은 1896년, 18세의 나이로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입산해 승려가 되었다. 오세암에서 그는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고 선(禪)을 닦았다. 이후 세상사에 대한 관심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등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을 여행하기도 했다. 그 후 1905년에 재입산해 설악산 백담사에서 연

곡(連谷)을 은사로 정식으로 득도했다. 1908년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공부하다 마침 금강산에 방문한 일본 불교 조동종(曹洞宗) 관계자들의 후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5월부터 약 6개월간 조동종대학(현재의 고마자와대학)에 입학해 불교와 서양철학 등을 배우며 새로운 문물을 익혔고, 조선인 일본유학생들과도 교류했다.

만해가 이 책을 저술한 동기는 약 6개월간 일본 불교계를 견문했던 경험에 있다. 이 시기에 일본 불교는 이미 매우 발전해 있었다. 당시 일본에는 불교대학, 불교유치원, 포교당, 복지시설, 출판사 등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 만해는 이런 발전상을 보면서 조선의 열악한 불교 현실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하여 근대화의 주장이 꿈마하고 있었다. 만해는 일본 불교계의 이런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란 ‘우물’을 벗어나 세계를 여행하고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 불교를 좀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번역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번역투의 일관성이다. <조선불교유신론> 원문은 한글 토나 조사만 한글이고, 그 한글의 문투도 ‘~하니라’, ‘~하랴’, ‘~하나니’ 등 옛 말투로 되어 있다. 이원섭 번역본은 원문의 한자 부분을 비교적 원문에 충실히 번역한 반면, 한글의 문투는 현대어법과 원문의 옛 말투를 살린 대목이 섞여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번 번역본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옛 말투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문장으로 옮겼다.

둘째는 원문의 인명과 지명 확인이다. 이원섭 번역본은 <조선불교유신론> 원문에 자주 등장한 서양철학자의 인명이나 지명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애매한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대목이 많다. 그런데 이번 번역본에서는 <조선불교유신론> 본문에 사용된 서양인명과 지명의 원어를 밝히는 한편, 이원섭 번역본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을 바로잡았다.

셋째는 원문 출처에 대한 확인이다. 이원섭 번역본의 큰 문제점 중 하나라는 <조선 불교유신론> 본문 가운데서 만해가 인용한 문장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만해의 문장은 문체나 서술 스타일, 용어 등 상당수가 량치차오의 글에서 인용한 대목이 많다.

앞서 지적한 서양인명과 지명 문제도 이와 연관이 있는 셈으로, <조선불교유신론> 본문서 서양철학자를 언급한 부분은 거의 량치차오의 문장서 가져온 사실만 보더라도 만해 문장의 주요 출처가 량치차오의 글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원섭 번역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는게 역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번역본은 기존 번역본과 달리 <조선불교유신론> 본문의 단순 해석을 넘어, 만해가 본문서 인용한 문장 출처를 가능한 찾아 밝히고, 인용문과 원문 간의 변형 등에 대한 텍스트 비판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ul.com

##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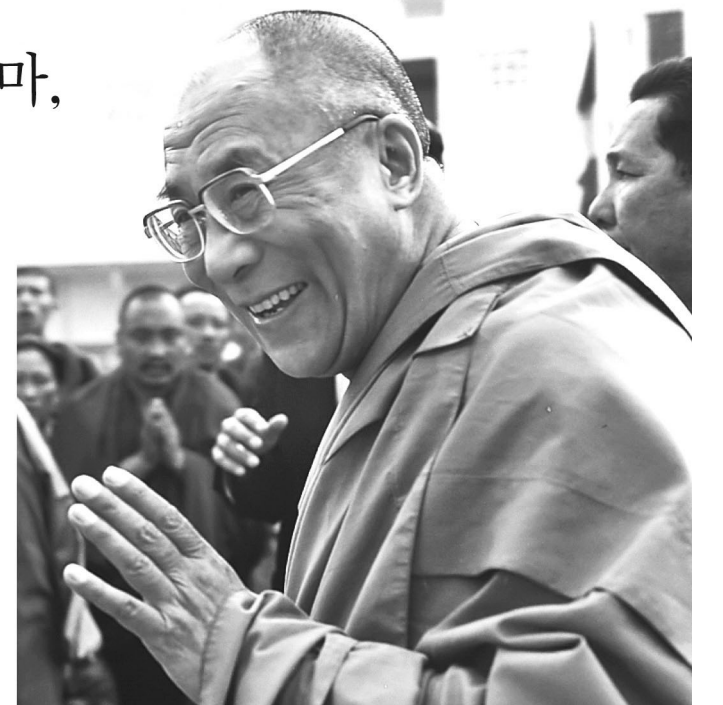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